티베트 천년 벽화, 도록에 '총망라'

美 작가 〈티베트의 벽화들(Murals of Tibet)〉 출판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고원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불교벽화들이 다시 살아났다. 미국의 사진작가 토마스 레이어드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초대형 도록 〈티베트의 벽화들(Murals of Tibet)〉을 최근 출판했다.

지난 2월 8일 인도의 인터넷 매체 '퍼스트 포스트'는 작가와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레이어드 씨는 "1986년 처음 티베트를 여행했다. 처음 벽화들을 보는 순간 불교철학의 증거와 정수가 여기에 담겨있음을 직감했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벽화들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점점 훼손되고 있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사진으로 남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찰의 반응은 냉랭했다. 오랫동안 예경의 대상이었던 벽화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낯선 서양인들이 현대의 기자재들을 법당에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레이어드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 스님들에게 이 작업은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당시 고충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촬영이 허가 되지 않은 사찰과 법당들의 벽화까지 촬영할 수 있었다.

〈티베트의 벽화들〉에 실린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9세기경 제작돼 서부 티베트에 남아있는 불화이며, 가장 근래의 것이라도 약 500년 전의 벽화들이다. 벽

수많은 벽화 훼손 막고자
사찰 끊임없이 설득 나서
10년간 촬영 · 편집 작업
"위대한 유산 후대 전하길"

화들은 사진기를 이동식 프레임에 고정, 고속으로 연속 촬영하는 스티치 시스템으로 촬영됐다. 촬영된 사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연결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굴곡지거나 꺾인 구조의 벽에 그려진 벽화가 하나의 대작으로 연결됐다.

레이어드 씨는 "촬영 작업은 단순했지만 벽화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덕에 실물크기의 벽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에서 도록을 설명하는 작가 토마스 레이어드(가운데). 사진출처=타스첸

또한 단지 사진작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티베트 불교와 불교미술의 권위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대 인도에서는 고대불교미술의 맥이 끊겼다. 그러나 티베트의 불교미술에는 아직도 고대인도 불교의 상징과 양식이 그려지고 있다"며 이 작업이 불교미술사의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도록은 지난해 독일의 예술사진 전문 출판사 타스첸사(社)에서 가로 50㎝, 세로 70㎝에 총 498페이지의 초대형판으로 인쇄됐다. 레이어드 씨는 "촬영은 10년이었지만 벽화의 해석과 연구에 들인 시간까지 더하면 30년이 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유산을 후대에까지 남기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출판사는 단지 도록으로만 남기지 않기 위해 티베트학의 권위자들이 집필한 해설서도 함께 출판했다. 해설서에는 특별히 불교의 개론을 담은 달라이라마의 서문이 첨부됐다.

가장 처음 인쇄된 도록은 달라이라마에게 헌정됐다. 특별히 달라이라마는 저자들의 요청에 응해 한정판으로 인쇄된 998권의 도록에 모두 자필 서명을 남겨 출판을 축복했다. 달라이라마의 서명이 들어간 한정판 도록들은 전 세계의 대형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호주 해안서 명시대 금동불 출토

유럽 앞선 중국인 호주 진출 가능성 제기

호주 중서부 개스코인의 해안에서 중국 명시대의 금동탄생불이 발견됐다. 지난 2월 3일, 호주의 '더 시드니 모닝 해럴드' '더 오스트렐리안' 등 주요매체는 이 신비한 발견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이번 불상의 발견으로 유럽인들이 호주대륙을 발견하기 거의 200년 전에 중국인들이 먼저 호주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동탄생불이 발굴된 모습. 사진출처=유튜브

불상을 발견한 레온 데샹과 셰인 톰슨은 영상제작회사인 '핀 필름스(Finn Films)'의 운영자로, 다큐멘터리에서 필요한 영상을 위한 현지답사 중에 불상을 찾았다고 밝혔다. 둘은 "19세기 초, 서부호주를 다녀간 프랑스 탐험대가 탐험한 지역에서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지면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데샹은 "큰 소득이 없어 탐색을 포기하려던 찰나, 탐지기에 지면 가까이에 대형 금속이 묻혀 있다고 감지됐다. 처음엔 20세기에 유행한 촛대장식으로 생각했다"고 발굴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모래 속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금동불이었다.

둘은 즉각 서호주 해양박물관에 발굴을 보고하고 발굴당시 촬영한 영상과 고화질 사진을 전송했다. 박물관은 서호주 중국인 협회와 중국대사관과 접촉, 전문가들은 사진과 영상을 검토한 결과 불상이 명시대의 금동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중국호주이민자 역사박물관의 마크 왕 부관장은 "이 불상이 정말 명대의 진품이라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불상이 발견된 것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5세기 정화의 대원정이고, 하나는 오래전부터 호주와 교역한 말레이계 중국인들"이라고 중국인들의 호주 방문 가능성을 피력했다. 반면 일반교역품으로 불상이 전래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주호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추가적인 유물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자세한 의견은 충분한 조사가 끝난 뒤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프리카 '불교센터' 연 스님 願은…

우간다 승려 반트 스님
"불교문화 뿌리 내리길"

최초의 아프리카 불교 승려 중 한 명인 반트 부다락키타(Bhante Buddharakkhita, 52)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와 불교를 융합시키고 있다고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이 1월 31일 보도했다.


아프리카 최초 승려 중 한 명인 부다락키타. 사진출처=tricycle

부다락키타는 처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아프리카와 우간다에서 불교 전통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를 알리기 위해 힘썼지만, 가사를 걸친 그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숱한 암살 시도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장고의 노력 끝에 그는 결국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불교센터를 설립하는 최초 아프리카인 중 한 명이 됐다.

사실 그는 1990년 인도 찬디가르(Chandigarh)의 한 대학교로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캄팔라(Kampala) 지역에서 스티븐 카보고자(Steven Kaboggoza)란 이름으로 태어나 로마 가톨릭교인으로 성장한 그였다.

그러던 그가 동급생이었던 2명의 태국 스님에게 즉시 빠져 들었다. 그는 "스님들을 봤을 때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다"며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다람살라, 네팔 · 티베트 · 태국 등 순례를 하면서 영적 탐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티베트의 불교 · 문화 기관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직접 그 '최초'를 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달라이라마에게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당시 달라이라마가 "함께 할 친구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8년만인 1998년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함께할 도반이 마뜩지 않아 다시 해외로 나섰다. 그리고 남방불교의 한 스님과 인연이 돼 불교 센터를 설립할 기반을 닦아가기 시작했다. 그 스님과 인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많은 신도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보시금을 모아 2005년 마침내 우간다에 불교 센터를 개설했다. 그는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우물 지원, 나무 심기 사업 등 각종 자비 나눔 사업에도 발을 뻗치고 있다.

이제 부다락키타는 수년에 걸쳐 그만의 불교 수행법을 단련시키는 한편, 아프리카 문화와 불교의 유사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나는 교육의 기초로서 아프리카의 '지혜'를 차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나는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너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아프리카의 격언 등을 수행의 화두로 삼는다고.

마지막으로 그는 "비옥한 토양의 씨앗을 뿌리듯, 아프리카라는 대륙의 고유한 불교문화를 싹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웃어 보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로힝야족, 말레이시아 밀입국 시도 증가

불법 브로커 사기에 '강제 매춘' 끌려가기도

미얀마 군경과 극우 불교 세력과의 마찰로 난민이 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말레이시아 밀입국 시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2월 12일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로힝야 난민, '보트피플' 22명이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에 검거됐다. 다수의 로힝야족이 보트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번째다.

로힝야 난민 약 70만 명은 2007년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미얀마 군경의 로힝야족 반군 토벌 작전이 '인종청소'로 변질되며 방글라데시로 도피, 난민 캠프를 꾸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 로힝야 난민 본국 송환 합의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며, 많은 로힝야족들이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해 왔다. 보트피플의 밀항은 벵골만이 잠잠한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주로 이뤄진다는 게 AFP통신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로힝야 난민. 사진출처=AFP통신

방글라데시 당국자는 AFP통신에 "브로커들이 로힝야 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난민들이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하는 해상 밀입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BGB 관계자도 "젊은 여성들은 종종 강제로 매춘부로 끌려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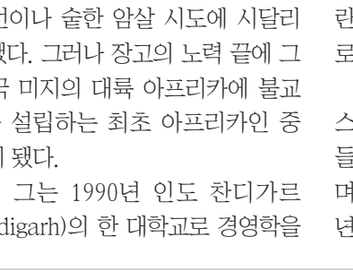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활인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